

KT, AX 플랫폼 기업으로... AI 인프라·보안에 18조 투자

기업-AI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정보보안·네트워크에 3년간 12조
AIDC·해저케이블 신사업 6조 투입

KT가 인공지능 전환(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통신 사업의 본질인 '연결'을 사람과 데이터 중심에서 기업과 인공지능(AI)을 잇는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안·네트워크부터 AI 인프라 등 신규 사업에 약 1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6일 풀만 엠베서더 서울 이스트플에 참석한 박윤영 대표의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통신업의 본질은 '연결'에 있다"며 "AX 컴퍼니 전환과 기업-인공지능(AI)의 '연결'이다. 최근까지는 사람과 데이터가 연결 주체가 됐다면 현재는 사람과 인공지능(AI)을 연결하게 됐다"고 했다. ◆"네트워크·IT 통합 관리 필요"... 보안 등에 12조원 투입

KT는 AX를 위한 전략으로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을 제시했다. '안정'을 기반으로 단단한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부터 네트워크까지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보보안·IT 핵심



박윤영 KT 대표가 6일 열린 'KT AX 플랫폼 컴퍼니'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에 4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지난 3개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네트워크 분야에는 6G-위성-데이터센터 상호연결(DC I)-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8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4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된 보안 운영을 통합한다. 또 보안 인력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가 중립적 위치에서 자문할 수 있는 회사 주도

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위성 분야에서는 KTSAT의 운영·관제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토탈 운영은 KT가 가장 잘한다"며 "옛 그제 국가 차원의 저계도 위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KT SAT이 운영과 관제에서 역할을 해야 연결 주체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IDC·토론펙토리·스테이블코인... 미래 성장 동력 제시
이러 '확실한 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도 공개했다. 특히 '실수요 기반'의 AI 데이터센터(AIDC) 공급 확대를 위해 5년간 5조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센터 25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KT는 전국 3500개 전국 통신 국사를 AI 엣지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박 대표는 1조원을 선제 투자해 현재 약 38Tbps 수준의 해저케이블 용량을 향후 5년 동안 128Tbps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KT는 AIDC와 해저케이블 신사업에 총 6조원을 투입한다.

AX 핵심 공략 분야는 금융·공공·제조·의료 부문 등이다. 금융권에는 AI 컨택센터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AI를 확산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소비 관련 AI 수요에 대응한다. 제조와 의료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참여해 산업별 AI 전환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B2C 영역에서도 AX를 적용한다. 통신사가 요금제를 정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고객이 주도적으로 요금

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객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초개인화 AX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객 상담과 문제 해결 과정에는 AI 기반 디지털 언어 기술을 적용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는 토큰 팩토리를 제시했다. KT는 통신망 운영에서 축적한 초정밀 과금·정산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에 분산된 1GW 규모의 AIDC와 자체 모델을 포함한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할 계획이다. KT 그룹이 보유한 K뱅크, 비싸카드 등 통신·결제·인증·정산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KT는 글로벌 AI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펄라티어부터 업스테이지·라벨리온·솔트룩스 등 국내 유망 AI 기업까지 파트너십을 넓힌다.

박윤영 KT 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은 물론 AX 관련 비즈니스는 KT 혼자 할 수 없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국내 AI·AX 파트너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KT도 잘 되고 파트너들도 잘 되고 국내 AI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mso@metroseoul.co.kr



metro

SKT AI 클러스터 '해인' 보안성 인정

서비스형 인프라 부문 인증 취득
국내 소버린 AI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 '해인' 클러스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클러스터란 여러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인은 블랙웰 GPU 1000개 이상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한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인프라다.

이번에 해인 클러스터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부문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획득을 통해 보안성에 대한 공신력과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망 분리와 데이터 격리 등 공공 클라우드가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했다. 회사 측은 "유휴 상태에서 검증이 아닌



해인 클러스터 앞에서 김명국 SKT AI 팩토리 사업담당이 CSAP 인증서를 들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SK텔레콤

라 정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실제 활용 중인 상태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인 클러스터는 현재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학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소버린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소버린 AI 클라우드에는 AI 학습, 추론, 데이터 처리 등 AI 작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조민선 기자

코오롱베니트, 연결회계 솔루션 고도화

'베니트시그마 프로' 출시

코오롱베니트는 차세대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시그마 프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베니트시그마 프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IFRS18) 대응과 연결 통제 강화, 공시 자동화 기능 등을 통해 기업의 연결결산 및 재무공시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기업들은 IFRS18 도입으로 비교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18은 오는 2027년 1월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새로운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에 대한 기준 변경과 경영진의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가 도입된다.

이번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IFRS18 듀얼 레포트' 작성이다. 기존 회계 기준과 새로 적용될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각각 비교해 손익 구조와 표시 항목의 변화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작성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통제 체계를 적용해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변경 이력을 추적해 감사 추적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IFRS18 전환에서 발생하는 분석, 검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해 새로운 공시 체계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증을 통과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주석을 다트(DART) 전자공시용 DSD 파일로 자동 변환하는 등 산출부터 회계법인 감사 대응, 최종 공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용량 내부거래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경영정보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기업지원관리(ERP)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P의 브랜드와 타기업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공식 버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패치 개선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프렌즈, T1 선수단 담은 협업 굿즈 11종 선보

페이지 합류 선수단 완전체

카카오프렌즈가 e스포츠 구단 T1과 두 번째 협업을 통해 신입 선수 '페이지'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의 특징을 담은 굿즈 11종을 선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가 e스포츠 구단 T1과 두 번째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인 T1 협업 굿즈는 카카오프렌즈 대표 캐릭터 춘식이 선수들의 개성을 반영해 e스포츠 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2차 협업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김수환을 비롯해 최현준, 문현준, 이상혁, 류민석 등 T1 선수단 전원의 매력을 담은



카카오프렌즈 T1 2차 협업 굿즈. /카카오프렌즈

상품을 선보인다. 출시 제품은 키링 인형과 포토카드, 피규어, 쿨링 파자마, 데스크 매트 등 총 11종이다. 키링 인형과 피규어에는 선수별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했으며,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쿨링 파자마와 데스크 매트

등 실용성과 소장 가치를 높인 제품도 포함됐다.

협업 굿즈는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스토어와 에이블리, 카카오프렌즈 흥대 플래그십스토어를 비롯해 코엑스몰, 용산아이파크몰, 신세계 동대구역·센텀시티점·대전점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카카오는 굿즈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6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총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 T1 선수단 전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랜덤 피규어 플레이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되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헬로비전, 최양락 직장 체험 예능 공개

오리지널 예능 '불 같은 후배'

LG헬로비전은 유튜브 채널 헬로라이프에서 오리지널 예능 '불 같은 후배'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그맨 최양락이 2021년생 신입사원 '최막내'로 변신해 다양한 기업의 직장에서 활동하는 체험형 예능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예능 포맷이 아닌, 조직 내부로 들어간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직장인들의 진짜 일상과 조직 문화를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최양락 캐릭터 특유의 유쾌한 충청도

화법과 돌직구 리액션을 보여준다. 방송 경력 40년이 넘는 경력자가 가장 어린 신입사원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위화감을 예능적인 재미로 승화시켰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지점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짚어내기도 한다.

MZ세대를 대표하는 20대 시수에게 새로운 직장 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는 최막내의 좌충우돌 적응기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헬로라이프는 LG헬로비전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10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